

다시
희망의
꿈이
피었습니다

2 0 1 9 년 신 용 회 복 수 기 집

다시
희망의
꿈이
피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난 희망이야기



2019 신용회복 수기집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내면서

우리 사회에는 신용 불량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을 힘겹게 영위해 나가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 수기집에는 그러한 역경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내신 분들의 희망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
가장이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위기에 굴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한편
삶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연의 주인공들께서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 계 문



2019년 신용회복 수기집

다시
희망의
꿈이
피어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난 희망이야기



발간사		05
PARTS 01	희망을 찾는 사람들	11
PARTS 02	2019 신용회복 수기 공모전 수상작	29
대 상	김정숙 불혹의 문턱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30
최우수상	김희연(가명) 그래도 괜찮아	40
최우수상	윤연숙(가명) 드디어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다	48
우 수 상	박은정(가명) 그래, 다시 한번 살아 보는 거야!	56
우 수 상	유나리(가명)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	62
우 수 상	양우진(가명) 긴 장마가 끝나고 다시 해가 뜬다	68
우 수 상	김혜림(가명)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	74
장 려 상	구태경(가명)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80
장 려 상	김철호(가명)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운 '값진' 시간	84
장 려 상	이미연(가명)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 봐라!"	88
장 려 상	이정열(가명) 위기와 실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도	92
장 려 상	강순진 희망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96
가 작	이사랑(가명) 부부란 고난과 역경도 함께하는 것!	100
가 작	윤기량(가명) 새로운 세상에서 바라본 '희망'	104
가 작	김나은(가명) 인생 공부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길...	108
가 작	이용자 '천국의 셋방'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112
가 작	권원준(가명)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마주하다	116
가 작	이일환 "채무는 이제 내가 책임질게!"	120
가 작	김철현 "이젠 활짝 웃어 보자!"	124
가 작	선영진(가명) 한 번의 실패,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128
가 작	박신영(가명) 희망의 빛으로 다시 꿈을 꾸다	132
가 작	박준형 부부란 고난과 역경도 함께하는 것!	136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PARTS **01**

희망을 찾는 사람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완제한 그날,
이제는 제법 자란 10살이 된 딸아이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비록 겉보기에는 조촐하지만,
세 식구 마음속에는 임금님 수라상 못지않은
화려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물론
곁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더는 부러울 것이 없더군요.

- 김 ○ ○

남편은 지금
아침에는 탁송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가 커 가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고,
돈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천천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 ○ ○



“축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1회분을 납부하고 몇 시간 뒤,

‘완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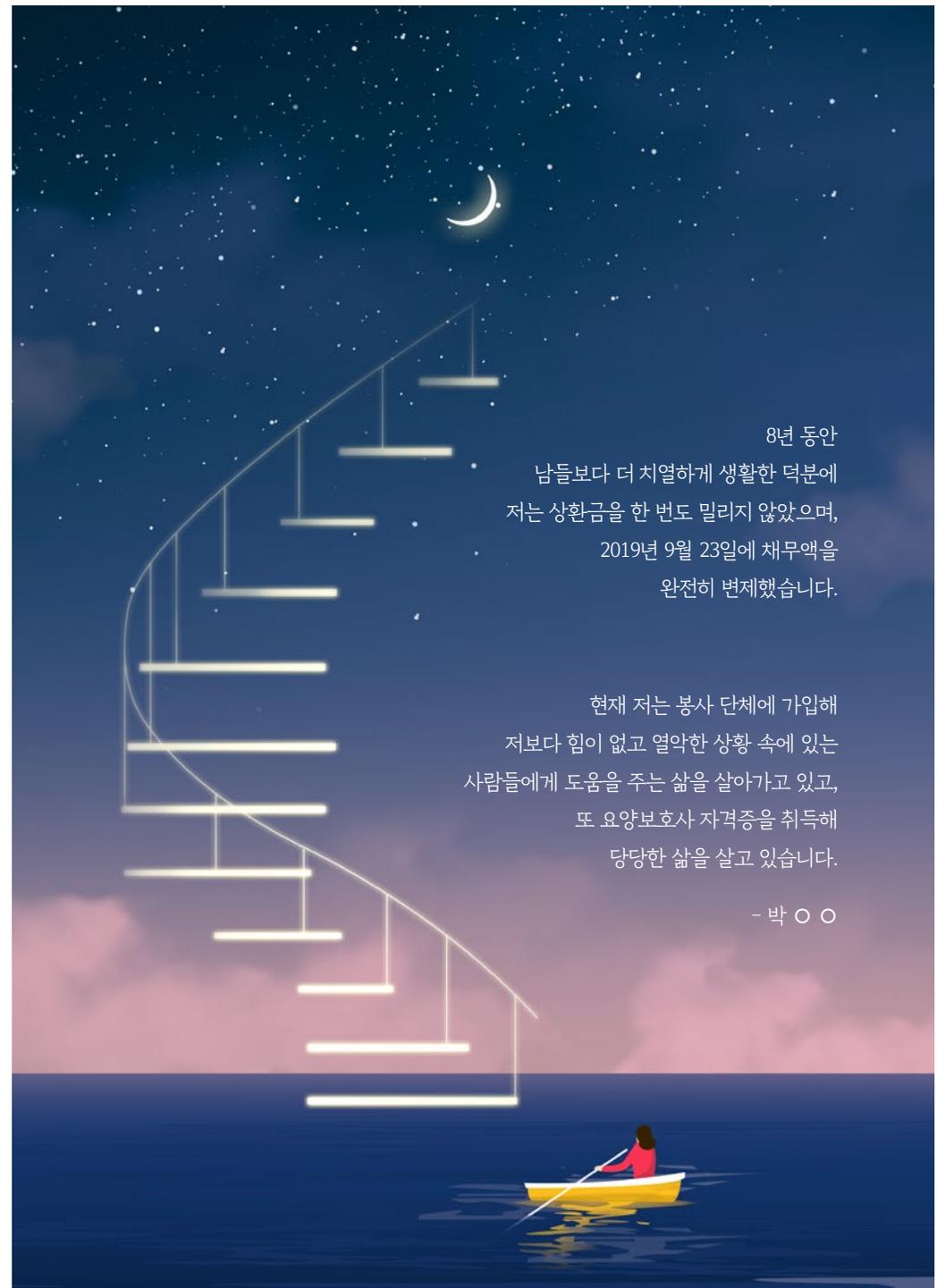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뿔 듯이 기뻐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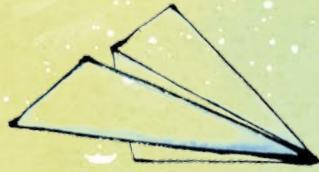
- 윤 ○ ○



8년 동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생활한 덕분에
저는 상환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으며,
2019년 9월 23일에 채무액을
완전히 변제했습니다.

현재 저는 봉사 단체에 가입해
저보다 힘이 없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 박 ○ ○



아직도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 일상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굴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며
소소하게 보험도 들고
또 저축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 ○ ○



이제야
안정되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게 웃고 즐거워하는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제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 양 ○ ○





‘내가 감히 행복을 바라도 될까?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온 날이
어둡고 차가운 음지였으니,
살아갈 나날은 희망의 빛이 닿는
양지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 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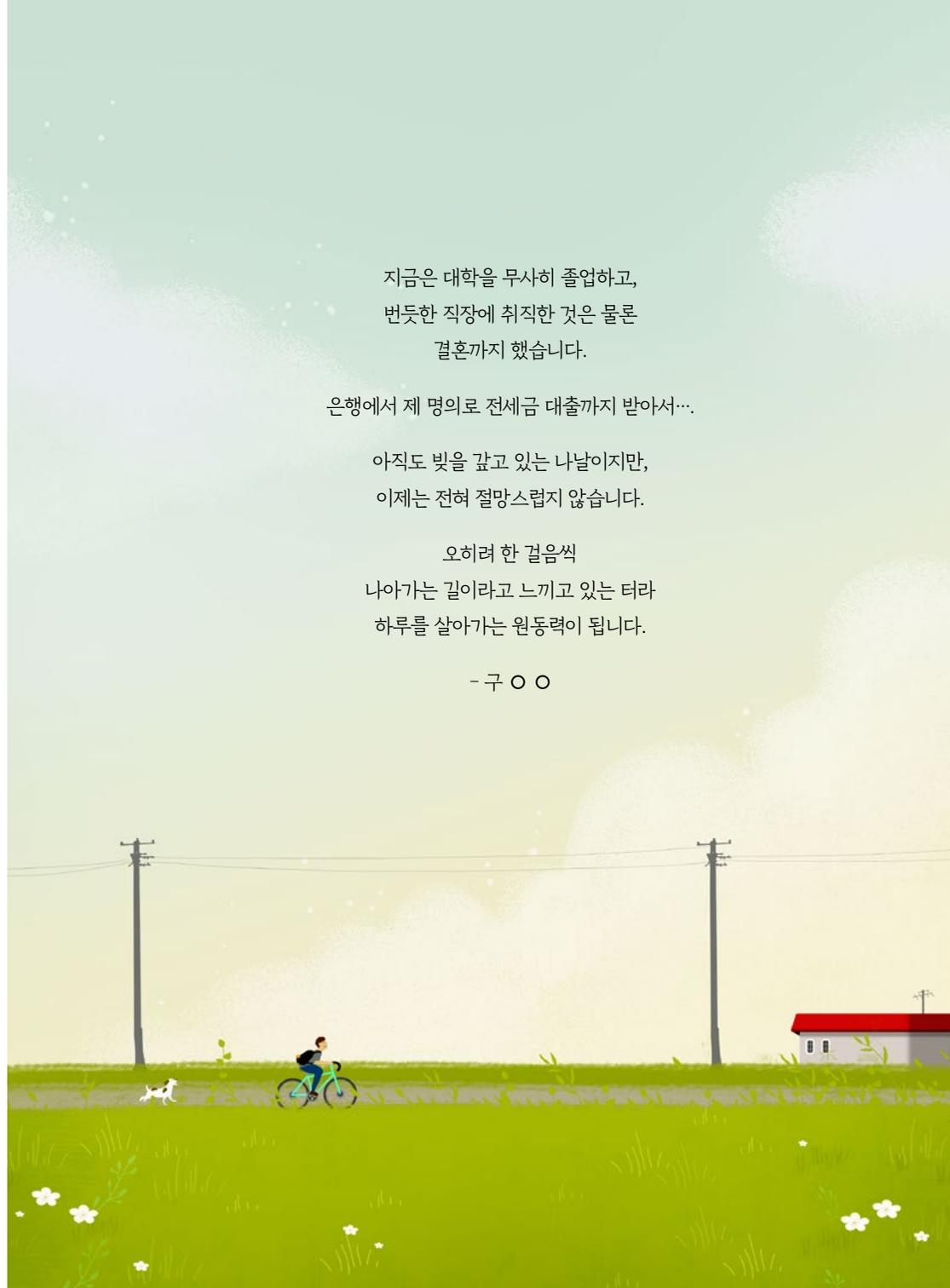
지금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것은 물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제 명의로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직도 빛을 갚고 있는 나날이지만,
이제는 전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터라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 구 ○ ○





추위에 떨며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자,
금융기관의 독촉이 거짓말처럼 중단되더군요.

‘두드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처럼 저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 김 ○ ○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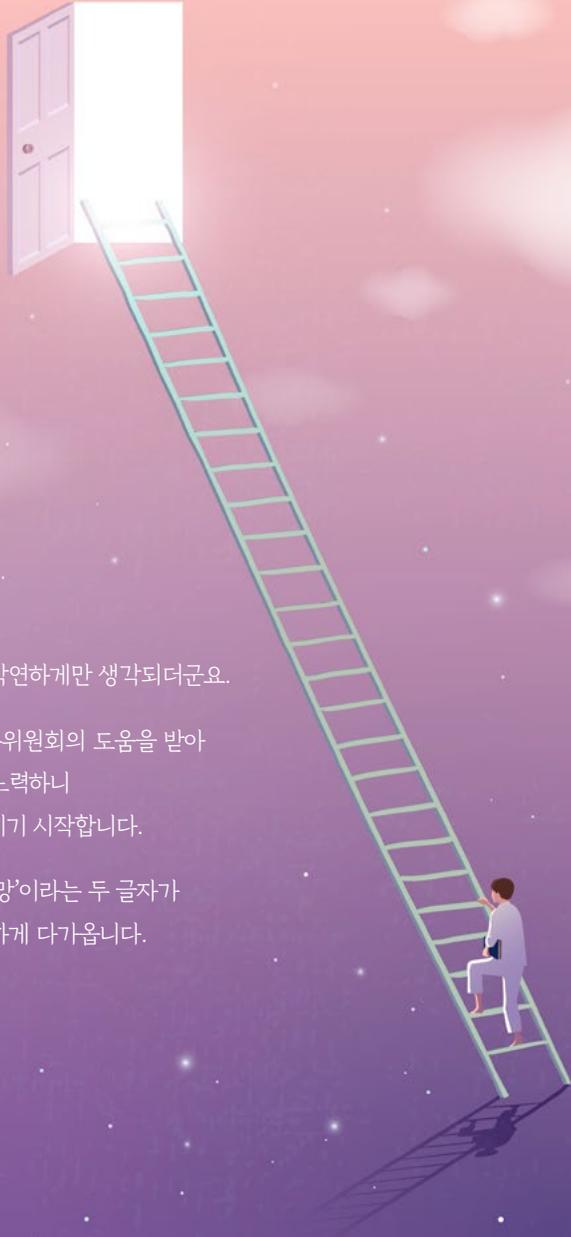
그리고 2018년 2월,
저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 보라.’

어디선가 이처럼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았고,
비로소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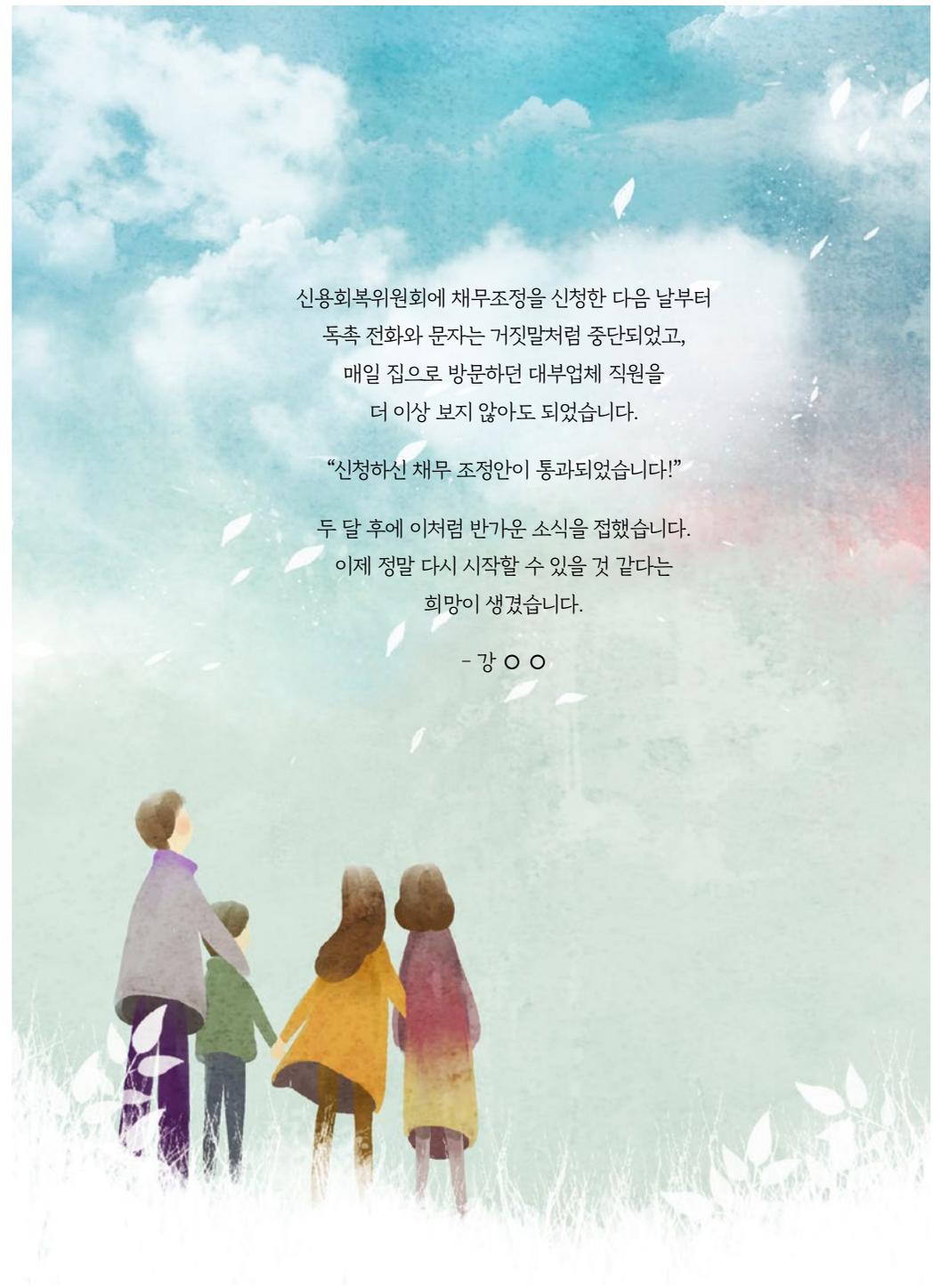
‘언제 갠나...?’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게만 생각되더군요.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니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 드리운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 이 ○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와 문자는 거짓말처럼 중단되었고,
매일 집으로 방문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채무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 강 ○ ○

“열심히 모으기 위해
평생 벌기만 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빛을 냈다”라는
남편의 진심을 믿고 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90만 원과 저의 323,531원...

그동안 매달 갚아 나가던 돈만
300만 원이 넘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신용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희망의 불빛 그 자체였습니다.

- 이 ○ ○



올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빛을 다 갚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더 감복했습니다.

- 윤 ○ ○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사기를 당한 후 그동안 자괴감에 빠져
사회와 단절하기도 했던 시간들…

이젠 낭비라기보다는
인생 공부를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 김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또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일도 생겼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수혜자로 선정되어
지긋지긋한 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이 ○ ○



다시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PARTS 02

2019 신용회복 수기 공모전 수상작





불혹의 문턱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학생, 카드 하나 만들어 봐요.”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모난 형태의 작고 예쁘기까지 한 앙증맞은 물건...
그것이 제 인생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만 보며
말로만 대충 들어 알고 있었을 뿐,
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못 사용하면 어떤 결과에 부딪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카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난 금융채무불이행자라서...”

당시에 저는 저보다 몇 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된 남자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때는 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은 나이에,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남자의 말을 믿었다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야!”

처음 얼마간, 그 남자는 카드로 빌려 간 돈을
제날짜에 꼬박꼬박 갚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도 여러 장 만들어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조금만 기다려 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는 제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기만 할 뿐
빌려 간 돈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로 인한 카드값과 대출금은 이미 산더미처럼 불어나더군요.
결국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여기저기서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인생 끝내고 싶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어쩌다 통화가 되면 갖은 욕설과 비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앉아 남몰래 흐느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간혹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는 채권자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만난다는 게 두려워 친구 집에서 잔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도 언젠간 갚겠지…’

저는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그 사람과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지속되자, 어느 순간에는
가족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이 한 번 발각 뒤집히고 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남자는 제 곁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평생 일을 해도 손에 쥐기 힘든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제게 남겨 놓은 채….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어엿한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인 탓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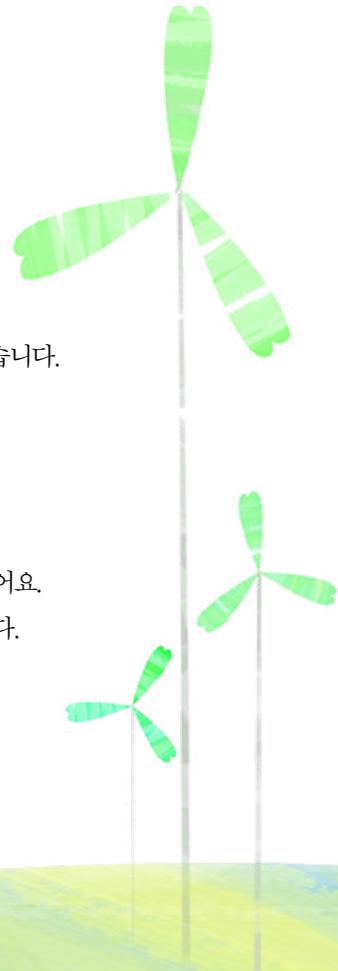
그래서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 조정안은 무사히 통과되었고,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은 후

남은 금액은 8년간 나누어 갚게 되었습니다.





빛과의 싸움이 끝나갈 즈음 또다시 찾아온 불행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신용이 회복되었고,
저는 자신감에 부풀어 물리치료사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저를 옹아팠던 빛의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남자 한번 만나 보지 않을래?”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1년간 연애를 한 후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성격도 활발하고 또 유머러스할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빛 갇아야 하니까, 돈 좀 내놔!”

사람이 이토록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제게 온갖 욕설을 하며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상하기만 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지….

“결혼 전부터 있던 빛이야. 그것 때문에 나 요즘 너무 힘들거든….
그리 많은 금액도 아니니,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기본이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는 했습니다.

‘그래, 애 아빠고 또 평생 함께할 사람이잖아.’

견디다 못한 저는 이렇게 자위하며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수종의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빛 때문에
당신에게 돈 관리를 맡기지 않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월급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봐.”

많이 불안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또다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빛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도박에 손을 댄 그는 빛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만에 여기서 빌려 저기 갚고
또 저기서 빌려 여기 갚았는데,
이젠 또다시 감당하지 못할 빚을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손을 내밀고는 했었는데…
결국 그 누구에게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우리 네 식구는 마침내 야반도주를 결심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고통의 순간들

남편과 떠돌며 지내다 보니
제 스스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 버렸고,
심지어 극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제 곁에는 늘 아이들이 있었지만,
마치 가뭄에 타들어 가는 풀뿌리처럼
삶에 대한 의지는 점차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내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 바엔 연탄불이라도 피우고 세상을 끝내는 게 낫겠어.’
제 자신이 미워서 더는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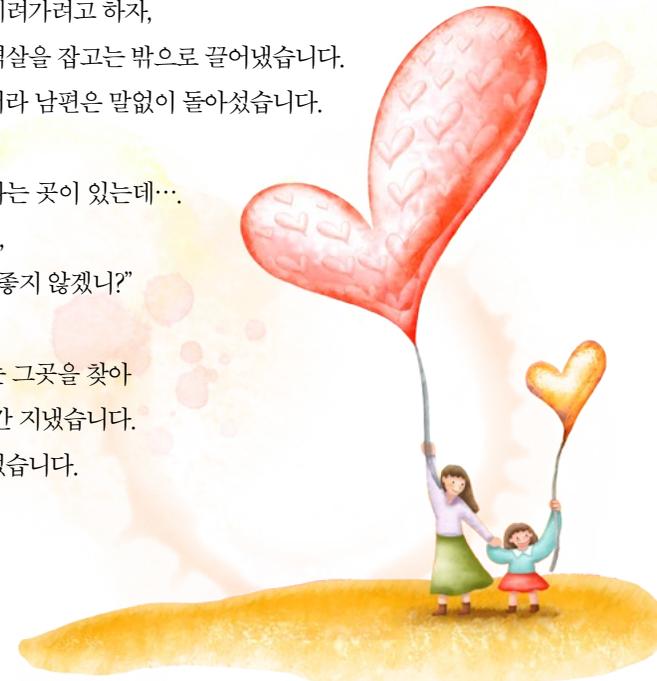
동반 자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데 뒹켜 놓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는 순간,
눈치 빠른 남편이 바로 뒤따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니, 당장 나가거라!”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멱살을 잡고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완강한 터라 남편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숙식도 제공된다고 하니,
일단 그곳에 가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셋째 언니의 권유로 저는 그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약 한 달간 지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혼뿐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워 낸 소중한 인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젠 빚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9년 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8년에 가까운 채무조정 기간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카드값과 휴대폰 기기값 그리고 대부 업체의 빚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채무를 한곳에 모으고
또 일부 금액을 감면받은 후 길게 나누어 상환하게 되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든지...

다행스럽게도,
그 무렵에 개원하는 병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면접을 보고, 합격과 동시에 일을 시작했지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5년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월 35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 나갈 수 있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도움으로
통장 만기와 함께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수령해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완제한 그날,
이제는 제법 자란 10살이 된 딸아이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비록 겉보기에는 조출하지만,
세 식구 마음속에는 임금님 수라상 못지않은
화려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은 물론 곁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더는 부러울 것이 없더군요.

이제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저축액도 더 늘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삶이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떠안지 않고
은누리의 찬란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



행복보다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술만 마시면 욱하고 때리며, 무엇이든 부순 후에야 성이 차는 아버지...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보다는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던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동생과 함께
 이를 악물고 생활했습니다.

20살 되었을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생과 우유 배달을 하며 살기 위해 발버등을 쳐야 했습니다.
 우유 배달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출근했고,
 저녁 7시가 되어야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화목한 가정을 꿈꾸다

그렇게 치열했던 20대를 보내고 30살이 되던 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
 “인상이 정말 선하시네요.”

제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남편은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믿고 돕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화목한 가정을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다 잘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무엇보다도 남편은 상처받은 제 자존감을 높여 주었어요.
제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충고와 더불어 걱정을 해주며 저를 껍뻍이 아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제게 오래 머물지 않더군요.
유산과 자궁 외 임신...
소중한 아이와 두 차례에 걸쳐 이별을 겪으며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마음은 난도질을 당한 종잇장처럼 제멋대로 훑날렸습니다.
결국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불어나는 빛을 감당하기 힘든 나날들

“스트레스만 날려 버릴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해야 해요.
남편과 동생의 도움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깐요.”

담당 의사도 적극 권하는 터라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떡하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자그마한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의 인상이 선해 보여서일까요?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총 3번의 크고 작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빚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이 상황에 아버지까지...
저는 당황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아버지까지 챙겨야 했거든요.

태풍이 몰아치듯,
주변의 모든 것이 휘감겨 날아가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선물도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정말이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늘이 내려 준 고귀한 선물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혹시나 우울증으로 인해 우리 아기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이제 좋은 생각만 해야지?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키워야 하잖아.”

저희 부부는 아이를 위해
서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아이가 생긴 후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기의 꼬물꼬물한 발가락과
작은 입으로 하품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게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공황장애 증세도 차츰 좋아지며
웃음을 되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시름이 봄기운에 차츰차츰 물들듯
온화하고 평화롭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써 보지도 못한 많은 돈을 갚기에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보험회사 영업, 대리운전 등을 하며
자정이 되어야 집으로 겨우 들어오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신용회복위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개인채무도 상당했던 터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빌린 카드 채무를 8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두 달 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날,
저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마법 같은 주문은 다시 희망이 되고

“괜찮아, 잘될 거야. 아니 더 잘된 거 아니야?

40대나 50대에 망했어 봐. 그땐 우리 아기도 커 있을 텐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망해 본 게 난 참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음을 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은 저희 부부에게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는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아침에는 탁송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아이가 커 가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고,

돈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천천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다



내 인생도 돌려 막을 수만 있다면...

한때 저는 화장품회사의 지부장이었습니다.

매월 4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도

영업을 위해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하기만 하더군요.

‘매월 나가는 카드값만 없으면...’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는 일만 없어도...’

5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돌려 막는 일상이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 2장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지인이 일명 카드깡에 대해 설명해 주며 유혹하는 터라

저는 한도가 높은 남편의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전화를 안 받네.’

돈을 받기로 한 날,

지인이 전화를 안 받자

저는 그제야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덜컥거리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지인에게 속아 총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순간에 빚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덩이

‘남편이 이 일을 알면 안 되는데...’

남편 몰래 수습해 보자!’

저는 급한 마음에,
상가에서 장사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빚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더군요.

100만 원이던 이자가 어느새 400만 원,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독촉에 시달리던 저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또 빌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빚은 원금만 1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자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당신 누구한테 협박당하고 있어?”

남편이 캐묻는 바람에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기 전에 다 내려놓자!
어차피 지금도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닌데…”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채권자들은 경매를 통해
쓸 만한 물건들을 모조리 가져갔고,
우리는 집까지 넘긴 후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얼마 후 지인의 도움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저 때문에 남편은 본인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다시 일어나기엔 직업도 변변치 않았고,
제 이름으로는 직장 일은 물론
은행 업무조차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

어느 날, 입대를 앞둔 아들이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치료로 2년을 보낸 후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양쪽 다리가 괴사되었고,
한쪽 달팽이관이 녹아
오른쪽 귀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듣게 되었습니다.

4년 넘게 아들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나니,
그 전에 경험했던 급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은 탓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야.
넌 정말 바르게 잘 자라 줬잖아.
이겨내 줘서 고마워.”

젊은 나이에 이처럼 힘든 과정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밖에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겹치고 또 겹치더군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당뇨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던 끝에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대로 둥글둥글 같이 살아요.”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해 시아버지를 잘 모실 자신은 없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흐르고 큰 굴곡은 지났지만,
매월 납입해야 하는 남편의 채무조정 변제금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고
8년간 분할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가계 상황에 따라 미납과 연장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6개월씩 납입을 유예 받기도 했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못 받았습시다.
변제할 금액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1회분이 남았는데,
이번 달만 납부하시면 채무 상황이 종료됩니다.”

“네?”

저는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그러자 다시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1회분이 남았다고….

그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1회분을 납부하고 몇 시간 뒤,
'완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만에 떨 듯이 기뻐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무심히 올려다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못난 엄마 그리고
어리석은 아내로 인해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각자 원하는 일들이
잘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제게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
다시 한번 살아 보는 거야!

욕심이라는 게 뭔지...

저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무척 잘 되는 터라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제 더 넓은 점포로 옮겨 볼까.’

이처럼 무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는 동생에게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지요.
결국 카드를 돌려 막으며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습니다.

웃음조차 눈물로 물들어

착잡한 마음을 다독이며 사글셋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던지...

밤새 뛰어다니는 쥐들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까지 새더군요.
더욱이 집 안에 습기가 가득해 호흡기마저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러기엔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삶의 끈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순간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삶의 흔적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밤낮을 마다하고 새벽까지 진을 치고 있던 탓에
집 밖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감옥살이가 따로 없구나. 이리다 굶어 죽는 건 아닌지...’

결국 높은 이자의 사채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식당은 물론
돈이 되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깨의 인대가 파열되고,
무리한 노동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눈을 떠 보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중년 남성이 보이더군요.
심한 농약 냄새까지 풍기며...

“빛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결국...”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엿들으며,
그 순간 몹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 보자!’

슬픈 감정을 억누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다

어느 날,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던 중 손님이 두고 간
작은 노란색 볼펜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볼펜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글씨와 전화번호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볼펜을 집으로 가져와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튿날
신용회복위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알려 준 대로 몇 가지 준비한 후
원주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채무가 1억 원이 넘네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원으로부터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현기증마저 일더군요.

“원래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데...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2,500만 원을 8년 동안 상환하시면 돼요.”

이 말을 직접 듣는 순간,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생활한 덕분에
저는 상환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으며,
2019년 9월 23일에 채무액을 완전히 변제했습니다.

현재 저는 봉사 단체에 가입해
저보다 힘이 없고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서막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중화요리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가 주방을 맡고,
남편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달 오토바이를 도둑맞기도 하고,
심지어 배달 중 사고가 나면서
가게 사정이 자꾸만 나빠지더군요.
“우선, 현금서비스라도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자.”

가게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
그렇게 카드빚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늘마저 등을 돌려 버린 삶의 조각들

“이번에는 족발집을 해볼까?”
“노래방은 수입이 그나마 괜찮다는데...”

그러나 족발집에 이어 노래방까지,
사업은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당뇨네요. 지금 상태라면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말초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병원비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담당 의사의 그 말이 참 야속하게만 들리더군요.

일단 아파트를 처분해 빛의 일부를 정리한 후
시골 변두리에 있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마저 이렇게 등을 돌려 버릴 수 있을까요?
빌라의 주인이 갑자기 사망했고,
빌라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이
반도 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파멸, 그 끝을 향해

그러나 우유 배달, 파출부, 찜질방 야간 아르바이트 등
살아가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집 월세나마 밀리지 않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빚을 갚을 거야?
지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남편은 점점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다단계, 불법 투자 등에 눈을 돌린 남편은
결국 친척, 부모님, 친구들 돈까지 다 날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사채라도 좀 빌려 와!”

휴학한 후 학원 강사로 일하는 딸에게조차
아버지로서 차마 하지 못할 말을 내뱉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파멸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내린 한 줄기 빛

‘이토록 비참한 삶인데... 여기서 멈출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 지원 신용 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절망과 포기뿐이던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공공기관의 미화원으로,
남편은 택시 기사를 하며 다시 성실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노력해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도 밀리지 않고,
공과금도 연체되지 않을 수 있고,
소소하게 마주 앉아
치킨도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소소한 행복 & 축복의 시작

아직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 일상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빛의 굴레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며
소소하게 보험도 들고
또 저축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다시 해가 뜬다

돌이킬 수 없는 투자의 늪

17살에 자퇴를 한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성인이 된 후에는 자그마한 전셋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꿈꾸며 중고차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실적이 거의 없었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내가 식당을 오픈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거든.
너 투자 좀 해볼래? 그러면 내가 매월 수익금으로 돌려줄게.”

고향 선배가 투자 요청을 해오자,
다소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처음에 잘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업종을 변경해야 할 것 같아. 돈을 좀 더 빌려줄 수 있겠니?”
이번에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세금을 빼서 그 선배에게 돈을 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의 매출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어느 날,
저에게 연락도 없이 폐업을 한 후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중고차 영업 실적도 부진했기에,
결국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 막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결국 중고차 영업을 그만두고, 줄곧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도 희망도 없었던 '나'

그렇게 세상과 단절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부모님 소식이 궁금한 터라
결혼한 누나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남, 그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와.
우리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전화를 받은 매형은 저를 설득했지만,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저는 어떤 의지도 희망도 없었기에
부모님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매형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처남,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처남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매형의 말에 죽어 있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머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희망을 품다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상담 끝에 저는 수년간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기로 하고,
부채 중 일부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세월 마음고생을 하며
숨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고통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더군요.

“자그마한 치킨집이나 해보지 않겠니?”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웠던 부모님의 제안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배달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안정되었을 무렵,
저는 힘을 내서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잠을 줄여 가며 노력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만,
코피까지 쏟아 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제 자신과 싸우며 힘들게 공부 한 결과,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제 생애를 통틀어 그토록 기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도 다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저는 또다시 사회복지사에 도전했습니다.

밤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꼬박 2년을 더 노력해야 했지만,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적장애인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며 독립도 했습니다.
이제야 안정되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밝게 웃고 즐거워하는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제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

김혜림(가명)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인다



가랑비에 옷 젖듯 찾아온 불행

“오빠, 나 돈 좀 빌려줘요.”

불행은 가랑비에 옷 젖듯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남편이 어느 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1년쯤 지나자,
시누이가 찾아와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액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서까지
받지도 못할 돈을 시누이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 등을 도용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았더군요.

게다가 시누이 대신 보증까지 서 주며….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공장에서 일하며 내 대학 등록금을 쫓으니…”

시누이가 불쌍하고 고마워서 부탁을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약 6천만 원의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빚보증과 카드빚을 수습하기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병을 얻은 것일까요?

“자궁암입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자궁암이라는 끔찍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는 살고자 하는 의욕 대신

둘째를 낳고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설득으로 자궁을 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굶아 터져 버린 삶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용인으로 이사를 하고도 남편은 시누이의 부탁을 여전히 내치지 못한 채 몰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모두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준 남편은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주식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돈마저 빛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과 노점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요일마다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요일 장에 합류해 숙녀복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성향을 일일이 맞춰야 하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터라 장사가 생각처럼 잘되지는 않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재고는 쌓이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9,000만 원, 저는 2,300만 원이라는 빚을 갚아야 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채권추심원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몸을 숨긴 채 도망을 다녔습니다.

채권추심원이 찾아오는 날에는 장이 널뛰기하듯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다음 날 날이 밝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왜 이리도 고통스러운지...’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주민센터에 들러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안내 책자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채무 변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처음 방문하던 날,
그토록 떨리던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원이 변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친절하게 알려 주며 따뜻하게 대해 주는 터라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빚은 금액이 워낙 많은 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 회생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변제가 확정되어,
이자를 포함해 매월 28만 원씩
10년 동안 갚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락하는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도
디딤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가난과 역경 속에 살게 해 미안해~

지금도 저희 부부의
채무 변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의 눈에 빠진 후 남편을 많이 원망했지만,
남편과 저는 지난날의 미움과 원망을 털고
이 고난을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감히 행복을 바라도 될까?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온 날이 어
둡고 차가운 음지였으니,
살아갈 나날은 희망의 빛이 닿는
양지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마법 같은 신용카드 그리고 사치의 시작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어.”

어느 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접한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콜센터에 입사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카드 하나씩 만들어요!”

그때 저는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철없는 저에겐 신용카드가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화장품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엄마에게
화장품을 사다 드리고, 또래들 사이에서 기죽을까 봐
동생 운동화를 사 주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계산 없이 쓴 돈이 결국 빚으로 돌아오더군요.

불행의 또 다른 이름은 ‘절망’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콜센터를 그만두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껴 가며

성과 내기에 열을 올렸을 때는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로 받은 영업수당은
고객들이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일종의 빛이다!’

처음에는 사은품을 챙겨 가며 보험을 든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터라 받았던 수당들은
고스란히 빛이 되었어요.

희망을 잃지 마, 도와줄게~

온갖 나쁜 생각만 머릿속을 뒤덮을 때쯤,
지나가는 버스에 붙은 신용회복위원회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몇십 퍼센트의 이율을 감당하고 있던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흩어져 있던 빛을 통합하고,
이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적은 이자만 내면서 빛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8등급에서 4등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덕분에 저는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빛을 갚았습니다.
덕분에 8등급이라는 최악의 신용등급으로
변제를 시작했던 저는
4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것은 물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제 명의로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서...
아직도 빛을 갚고 있는 나날이지만,
이제는 전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터라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운 '값진' 시간

폐업 후 찾아온 시련의 순간들

20년간 운영해 오던 고시학원 4곳을 모두 정리하자,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개인 채무로 인해 법원, 국세청, 세무서 등으로부터 연락이 끊이지 않더군요.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고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으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압담한 터라 잠을 이룰 수 없어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물론 승용차까지 처분해 빚을 청산했습니다.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나니 금융권 채무 5천만 원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 3억 원이 남더군요.

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어느 날,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을 운영해 보지 않겠니? 너 학원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니, 잘 접목하면 회사를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가족 및 친인척, 학교 및 사회 선후배,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며 법인을 홍보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제도권의 사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가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많은 분이 흔쾌히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국의 단체장(시청, 군청, 구청, 경찰서, 군부대 등)과
양해각서를 맺었고,
단체장이 추천한 아이들 2천 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고아원 등을 우선 관리합니다.

두드리면 길이 열린다

제가 이렇게 나눔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3개월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하자,
한겨울인데도 도시가스가 정말로 끊기더군요.

학원을 정리하면서 남은 빚 때문에
금융기관의 독촉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추위에 떨며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자,
금융기관의 독촉이 거짓말처럼 중단되더군요.

잔뜩 움츠러든 채
처음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상담원은 정말 편안한 목소리로 저를 대해 주며,
불안한 심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을 합니다.

‘두드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처럼 저는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 보라!”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했으나,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터라
남편과 저는 생계를 이어 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밀린 집세를 내고,
생필품과 아이들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묵묵히 할 일을 하다 보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남편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적이더군요.
돈을 벌어 대출과 카드빚을 갚겠다는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빚을 갚아 보자.”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안
저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용카드로 빚을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카드는 5개가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가 걸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빨리 갚아요.
자꾸 이러면 우리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급기야 전화기 너머로 온갖 협박성 말들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

“친구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은 빛을 갓기 위해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더군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결국 저는 부정적인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간 지 십 분도 안 되어
딸아이가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물을 놓고 간 것 같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우물쭈물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희망이 보인다

‘다른 방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시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청 벽에 붙은 산용회복위원회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저는 망설이던 끝에 2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추심원의 온갖 협박이 떠올랐기에 무서웠으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담원의 말이 저에게는 정말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저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 바라.’
어디선가 이처럼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비로소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기와 실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도

창업 그리고 위기와 실패

여행 전문가로서 순탄한 길을 걷던 중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터라
직원도 더 늘리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지 업체가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한 것입니다.
그 여파로 회사가 잠시 휘청거렸지만,
마음을 다잡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동남아에 불어닥친 사스, 콜레라 등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취소가 빗발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현지(해외) 거래처가 돈만 가로챈 뒤
종적을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희망을 만나다

그 여파로 사업을 휘청거렸고,
저는 카드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

저는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셨죠?”

도와드릴 테니,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상담원은 암울하기만 한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신용회복 신청을 신속히 도와주었습니다.

여행사를 폐업한 후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취업이 힘들었던 저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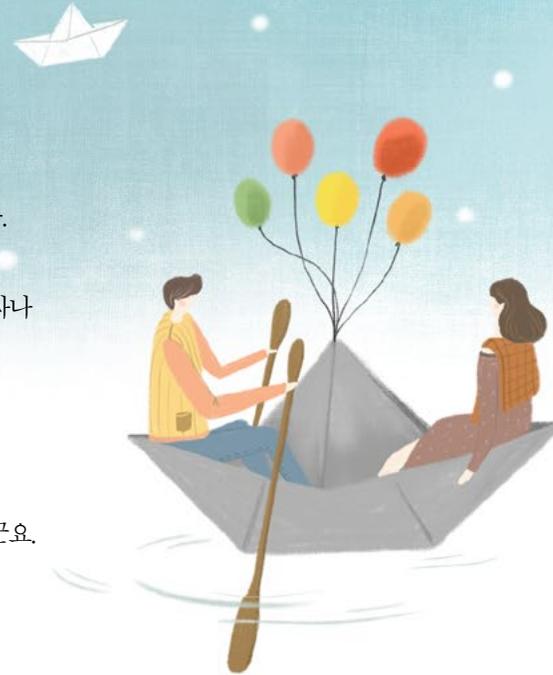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 월부금을 가끔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카드사 등으로부터 독촉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이젠 살 만하네.”

아내는 이 같은 말을 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더군요.



더욱이 신용회복위원회 월부금이 29만 원 남짓이라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을 때는 그것도 정말 큰돈이더군요.

삶에 드리운 ‘희망’이라는 두 글자

시내버스 운전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만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신용회복위원회 월부금 납입도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갚나...’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게만 생각되더군요.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니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 드리운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희망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의 덫

“A 캐피탈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 강순진(실명)씨가 선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만 받지 않았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대부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이 부담스러웠는데,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홀린 듯합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고객님, 신용등급이 낮아서 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이 필요하며, 법무사 비용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바보같이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가족들 몰래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대출금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수백만 원을 송금한 후였기에
스스로 다독이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송금한 돈은 어느새 ‘이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지만,
상대방은 무성의한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낸 돈이라도 돌려주세요!”

울면서 애원했지만, 이후로는 전화 연결도 되지 않더군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후

가족에게 알리고 또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애네들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내 생명의 은인

“빛 문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봐.”

제 상황을 지켜보던 직장 동료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채권자들 중 절반이 동의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담원은 제 표정에서 초조함과 걱정을 읽었는지,
친절히 위로해 준 덕분에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와 문자는 거짓말처럼 중단되었고,
매일 집으로 방문하던 대부 업체 직원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채무 조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달 후에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압류된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고,
그 많던 이자와 원금의 일부도 감면을 받아
8년간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성치 않은 몸으로 매일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절망밖에 남지 않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신용회복위원회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희망의 꽃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고?
앞으로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부란
고난과 역경도
함께하는 것!



집 VS 주식

둘째를 임신했을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9천만 원 남짓 한 돈을 받았습니다.

“주식에 투자해 돈을 좀 벌린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아!”

집을 장만하는 데 보태야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그날그날의 수익에 대해 말해 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주식 얘기는 전혀 하지 않더군요.

“주식이 잘못됐어. 상장이 폐지...”

어느 날, 남편은 저와 마주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거야?”

저는 그 귀한 돈을 그대로 포기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 은행 신용대출까지 모조리 끌어모아 봤지만
그것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어.”

남편은 저도 모르게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느라
저축은행, 캐피탈에서까지 대출을 받았던 것은 물론
신용카드도 두 개에서 여섯 개로 늘려 돌려 막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먹이며 그간의 모든 걸 토해 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라!

다음 날,
저는 주부대출부터 바로 알아본 후
남편의 급한 불을 켜했습니다.
또 차도 팔고 또 친정에 부탁해 도움을 받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9개월 된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던 보험 영업은
말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꼬박 석 달이나...

이후 카드사로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절망감으로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긴 터널도 끝은 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이 긴 터널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인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안이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으기 위해 평생 벌기만 한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남편의 진심을 믿고
회생 절차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또 신용을 회복하는 순간
희망의 불빛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바라본 '희망'

세상에 나올 용기조차 없던 '나'

저는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야 했습니다.

얼굴에는 고칠 수 없는 심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올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핏덩이를 안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

아들이 8살 될 무렵,
남편은 다니던 공장을 말없이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살림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남편은 저도 모르게 카드 돌려막기를 하더군요.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까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을 때쯤 일이 크게 터져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윽고 집 안 곳곳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배 속의 아이만 없었다면
큰아이만 데리고 당장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힘을 내 살아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카드 채권업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는 물론 집까지 찾아와 독촉을 해대더군요.
이 와중에 둘째가 태어나고, 형편은 더 악화되었어요.

지옥 탈출!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포승줄에 목이 묶여 살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저는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헤어진 후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쫓기듯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촉 전화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8년 동안 빚을 차근차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 주셔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뻐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더군요.
제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더 감복했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아~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빛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자란 아들은 곧 대학생이 되고,
딸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신용회복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생 공부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길...



수술 그리고 브로커의 잠적

“‘당막색소변성증’이라는 생소한 병인데,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고도 근시였던 저는
20살 때 이런 진단을 받고 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을 본 후 기대감을 안은 채 답글에 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소개 수수료와 수술 비용을 먼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브로커에게 송금했습니다.

“의사와 수술 일정을 논의한 후 며칠 내로 연락드릴게요.”

그러나 1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브로커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휴대폰번호도 결번이고,
인터넷 카페는 이미 폐쇄되었더군요.
저는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삶에서 탈피

대출금이 1년 넘게 연체된 터라
저는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 무렵 우연한 기회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하고,

바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추심이

거짓말처럼 중단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지 않았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더군요.

두 달이 지나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한 후

신용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4대 보험 가입되는 직장도 구하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걱정 없이 월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의 소개로 찾아간

고용복지센터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신청해

작은 월세방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도우미로서의 새로운 삶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낭비했구나!’

사기를 당한 후 그동안 자괴감에 빠져

사회와 단절하기도 했던 시간들….

이젠 낭비라기보다는 인생 공부를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작년에는 안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담당 의사의 권유로

장애등급을 신청해 6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행정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구청에서 ‘행정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후 지원해,

올 한 해는 구청에서 행정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셋방’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며,
보증금 5백만 원에 30만 원짜리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하방에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심하다 보니,
온 식구가 피부병에 걸려서 낫지를 앓더군요.

그래서 큰아이는 친절으로 보냈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작은아이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형편이었기에
그냥 집에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삶에 드리운 한 줄기 희망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일어서기는 어렵다고 했던가요?
살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했기에
남편과 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군요.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지출하면
원금은커녕 이자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건어물 장사라도 해볼까?’

이튿날, 작은아이 이름으로 장애인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 모두 금융채무불이행자이므로
장애인지원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죠.
법원의 파산면책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상담원이 뜻밖의 정보를 알려 주는 터라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가슴을 졸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
제발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파산 경위서’를 쓸 때는 정말이지
울음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빌고 또 비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인생 제2막이 시작되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또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일도 생겼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수혜자로 선정되어
지긋지긋한 지하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이층집…
전에 살던 지하방에 비하면 천국과 같더군요.

이제는 친정으로 보냈던 큰딸도 돌아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집까지 팔아 마련한 치킨집

“자그마한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둔 후
 몇 장의 신용카드로
 단기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대출(카드론)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무렵,
 친구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는 형이 치킨집을 오랫동안 운영했거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새로운 곳에서 가게를 다시 오픈한다는 거야.”

고민 끝에 집을 팔아 가며 그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군요.
 오랜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생활비는 가게를 운영하기 전처럼 현금서비스로 해결하고,
 재료비는 아내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
 결국 결혼 예물까지 팔아야 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집까지 팔아 가며 인수한 치킨집….
 그러나 빛만 잔뜩 껴안은 채 1년 만에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빚 독촉은 오히려 심해지더군요.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매일 수차례씩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
온갖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더군요.
결국 사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이 얼마데? 가불을 해줄 테니, 빚부터 갚아.
그토록 성실한 사람이 어찌다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월급에서
원금과 이자 일부를 공제한다는 조건이었어요.
큰돈을 선뜻 빌려주는 사장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사장님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월급으로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족한 생활비를
아내의 카드로 충당하다 보니
빛은 자꾸 쌓여만 갔습니다.

드디어 반환점을 돌다

대부업체의 추심과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무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자 없이 원금만
8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채무조정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사이 사장님께 빌린 돈도 모두 갚았습니다.
더욱이 아내의 보험약관대출도 대부분 갚은 터라
이제는 조금의 금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로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절망의 끝 그리고 불운

“친구야, 재정보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치킨 & 호프집을 운영하던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청업체가 사업을 너무 크게 벌이는 바람에 부도가 났지 뭐야.
결국 하청업체인 우리 회사까지 줄도산하게 생겼어.”

그로 인해 건설업을 하던 친구는 물론
그 친구에게 재정보증을 서 주었던 저 역시
이름도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동산이 법원에 압류되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었어요.

불운은 겹쳐 온다고 했던가요?
장래를 약속하며 동거했던 여자 친구가
아파트를 몰래 팔아치우고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게의 단골손님과 눈이 맞아서….

하늘이 노랗고 분노가 치밀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배신감과 허탈감에 세상이 미웠고,
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분노와 실의에 빠져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졌고, 거의 폐인이 되어 갔지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치매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견디다 못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한번 찾아가 봐.
채무를 조정해 주고 또 이자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준다.”

친구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상환하면,
언젠가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용 회복 신청을 한 후 재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용회복지원신청서와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아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등록했어요.
낮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며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주간 요양센터에 근무하면서
어머님 간병은 물론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며
하루하루 보람되고 알차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겹쳐 온다고 했던가요?

“네 덕분에 내가 종합건설회사 대표가 되었어.”

제가 재정보증을 해 주었던 그 친구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재기해 성공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네 채무는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아파트도 다시 장만하며,
우리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젠 활짝 웃어 보자!”



연봉 1억 5천에서 부채만 7억

한때 꿈꾸던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받는
잘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독립을 꿈꾸며
강남 한복판에 식당을 오픈하며
제 인생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부채만 7억 원을 안은 채...
제 역량과 회사의 규모에 비해
비전만 그럴싸한 모래 위의 집을 지었던 게 화근이었지요.

저를 믿어 준 몇몇 지인들마저 채권자로 변신해
밤낮없이 빚 독촉을 하는 바람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채권추심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어느새 저는 사기꾼이 되어 있더군요.

참다 못해 고속도로 역주행 등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혹은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지 마. 네 잘못이 아냐!”

“김 사장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해의 도피 그리고 새로운 도전

요리 공부를 핑계 삼아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여 개국을 유랑하며 식당 일과 요리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 이대 앞에서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나?”

7년간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던
한 어르신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난 자네가 7년간 쌓은 고유한 소스 노하우를 믿네.
게다가 한국에서 생소한 컵밥이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르신의 격려 덕분에 이대 앞에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컵밥’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한 면이 있어
그리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더군요.

“컵밥 사세요!”

결국 저는 이대 근처에서 가관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랑 시절 개발한 ‘컵밥의 원조’라는 자부심 하나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도 하자,
그제야 이대생들 사이에서 컵밥이 유명해지더군요.
이대 본점, 숙대점, 숭실대점 등
우리나라 대학가로 시장을 넓힌 것은 물론

베트남 호치민점 등 해외까지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7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1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김철현 님, 채무 상황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이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곳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에게 용돈 5만 원을 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또 지난주에는 그 두 배인 10만 원을 주었고요.

어려운 여건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휴학 후 영어유치원 선생님이로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딸아이가 무척 대견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어려움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도해 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아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각장애 1급인 저는 세상을 아주 흐릿하게 보면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엄마로서 한쪽 어깨를 내주며 잠시 기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에서 아빠도 없이 자란 아들이,
티 하나 안 내고 씩씩하게 자라 준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무척 좋아하더군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못난 엄마이기에 또 돈 걱정을 한 것입니다.

“엄마,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대출을 받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할게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말릴 수가 없더군요.

집 월세와 공과금,
신용 회복을 위해 나갈 채무를 빼면
한 달 생활비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은 제게 큰 선물을 주더군요.

“엄마, 이걸로 월세 내세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40만 원을 선뜻 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못난 부모로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시련 앞에서

그렇게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며 살던 어느 날,
며칠 사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과 손목건초증이네요.
빨리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저는 좌절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면,
엄마가 정부 지원을 받기가 더 쉬울 거예요.”

아들은 바쁘게 지내면서도
제가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것 같더군요.

정말 서글웠지만,
아들의 굳은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자!

아들은 제게 입영통지서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빚을 지면서도 형이랑 저랑 같이 살기 위해
힘들게 집을 얻고, 없는 돈으로 저희를 힘들게 가르치셨잖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가족을 위해 조금은 희생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돈으로 세탁기 바꾸세요.”

아들은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모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척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채무를 이행하며
제 신용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가정도 회복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다시 꿈을 꾸다



절망의 늪

남편은 결혼 후 1년 만에 외도를 했고,
그로 인한 빛으로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절망의 늪에 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대출을 받아
남편의 빛을 갚으려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설득해 가정을 지키고자
시력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해
남편의 빛을 정리했습니다.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기대하며….

그러나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시집살이는 물론
시누이 아이들까지 돌봐야 하는 고난의 일상이더군요.

더욱이 남편은 간통이 없는 나라인 미국에서
유학생과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30대 초반이었기에
용기를 내며 새로운 삶을 살아 보고자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무일푼으로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현실은
여자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을 만나다

“처제, 보험회사에서 일해 보는 게 어때?”

보험 일을 하면 많은 돈을, 그것도 빨리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형부의 소개로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일을 했지만,
소득이 없는 달이 많아
빛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심값이 없어 밥을 굶는 날들이 늘어나더군요.

카드값을 갚을 능력은 없는데,
결제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불면증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 신청을 해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누군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담을 받았고,
절차에 따라 신용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숨 쉬고 살 수 있겠구나.’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새로 들어간 직장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매달 몇백만 원의 돈을 돌려 막아야 하는
숨 막히는 일상에서 탈피해
4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게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희망의 빛을 만나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갔고,
지금은 소박한 꿈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돈을 쉽게 빌려준다기에...

7년 전,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막막하던 차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돈을 빌려드립니다.”

생활비도 없던 터라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동사무소로 바로 달려가
요청받은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아 팩스로 보냈어요.

그러나
“곧 연락을 주겠다”며 기다리랴던 상대방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군요.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 승인이 쉽게 나지 않네요.
급하실 테니, 우선 30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이런 연락을 받고도 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시다.
물론 ‘즉시 대출’이라는 광고와는 달랐지만,
30만 원으로 급한 생활비를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폰이 정상 개통되었습니다.”

두 시간 뒤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잘못 수신된 문자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시다.

소액대출을 받은 후 휴대폰 처분

며칠이 지나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던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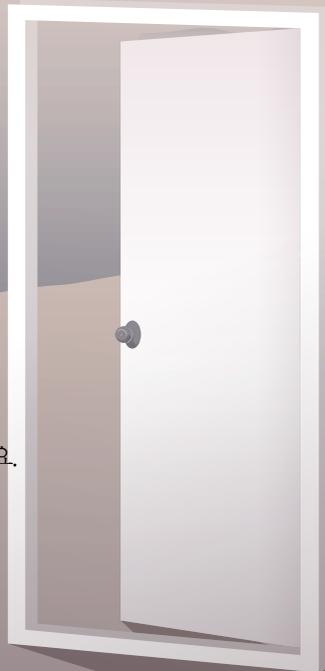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해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개통 문자를 보낸 대리점에 찾아가 항의도 했어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임장을 받고
개통한 것입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출상담사를 빙자한 사기꾼은 제 명의로
휴대폰을 무려 3대나 개통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도액까지 소액결제를 한 후
휴대폰기기는 중고로 판매했다고 하더군요.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경찰서에서조차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보지 못한 휴대폰 3대의 값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그 금액은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희망의 손길, 인생의 변화

그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리고 채무조정을 받아 이자를 모두 감면받고,
이자 없이 월금만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채무상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젠 금융권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등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란?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



지원 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지원 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각채권 원금 20~70%(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1 ~ 89일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30% 이상

지원 내용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최저 5% ~ 최고 10% 이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 ①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
 - ③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④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기간이 1~30일 이하
 - ⑤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

지원 내용

- 6개월 동안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상환
- 적용금리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정이자율 적용
-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금리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정이자율 적용, 최고 15.0% 이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i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만 적용할 수 있는 대상
 •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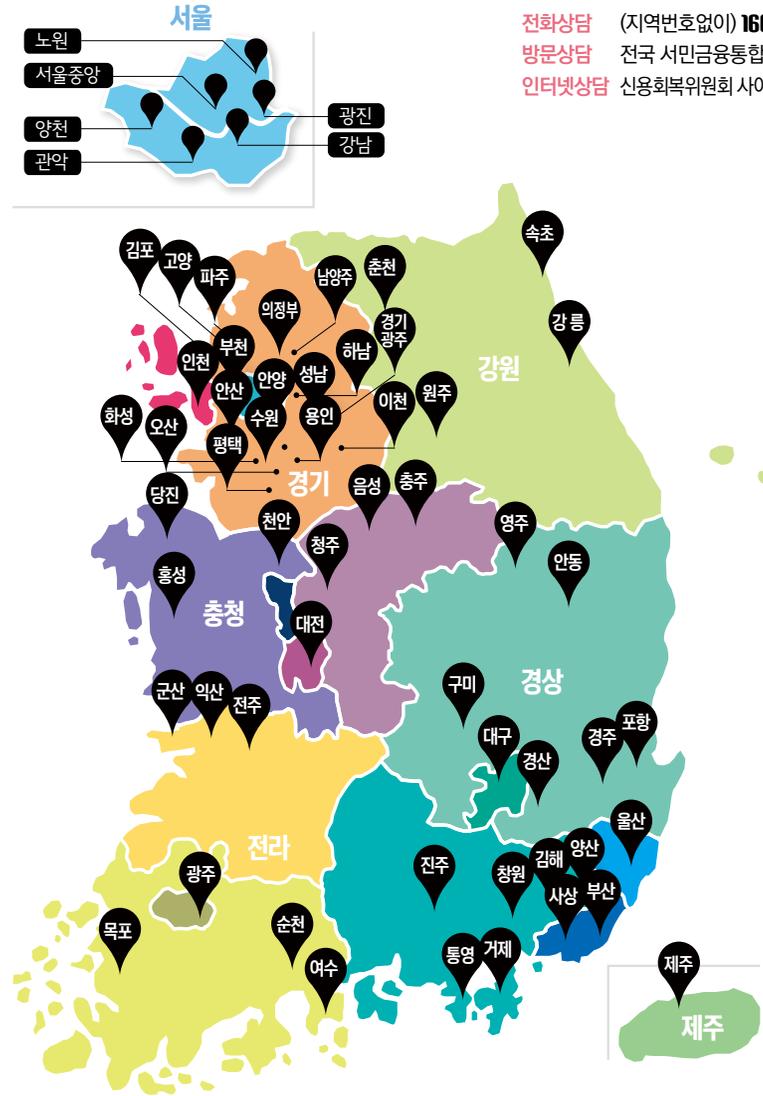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4. 전국통합지원센터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 위치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화상담 (지역번호없이) **1600-5500**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터넷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2019년 신용회복 수기집

다시 희망의 꿈이 스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난 희망이야기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이계문
발행처 신용회복위원회
감수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7층
문의 지역번호없이 1600-5500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